

제14장 — 피 냄새가 머무르는 왕궁

반란이 끝난 다음 날, 왕궁은 다시 문을 열었다. 그러나 누구도 그것을 회복이라 부르지는 못했다. 왕좌 회랑을 가득 메웠던 시신들은 새벽이 오기 전에 수습되어 보이지 않는 곳으로 옮겨졌고, 아직 숨이 남아 있던 이들은 의무실과 임시 치료소로 옮겨졌다.

부서진 수정등은 하나씩 떼어내어 천으로 감쌌으며, 검흔과 창자국이 깊게 패인 기둥에는 흰 천을 둘러 상처를 가렸다. 하인들은 말없이 뜨거운 물을 길어 와 피가 말라붙은 바닥에 붓고, 소금을 흩뿌린 뒤 긴 솔로 돌 틈을 문질렀다.

처음 흘러내린 물은 검붉었다. 두 번째 물은 어두운 장밋빛을 띠었고, 세 번째와 네 번째가 지나고 나서야 겨우 바닥의 원래 색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돌 사이 깊이 스며든 피는 끝내 모두 빠져나오지 않았다. 아무리 물을 끼얹어도, 아무리 힘주어 문질러도, 녹진한 쇠 냄새는 회랑 안쪽에 얇게 눌러붙어 떠날 생각을 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향초를 피워 끈적했던 피 냄새를 천천히 흘려보낸다.

푸른 해초와 흰 산호 가루를 섞어 만든, 바다의 정화 의식에 쓰이는 향이었다.

평소라면 잔잔한 파도처럼 마음을 가라앉혀주었을 냄새가 그날은 지나치게 짙어,

오히려 피 냄새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를 더 또렷하게 알려주었다. 달콤하고 짭 향이 회랑을 메울수록 전날 밤의 비명과 폭음이 다시 살아나는 듯했고, 향초의 연기는 천장을 향해 오르지 못한 채 낮게 퍼져 왕궁을 열은 안개처럼 감쌌다.

왕궁은 살아남아 있었다.
그러나 살아남았다는 말은, 숨을 쉬고 있다는 뜻에 지나지 않았다.
하인들은 더 이상 혼자 움직이지 않는다.
물통을 옮기는 사람도 둘, 찢어진 천을 걷어내는 사람도 둘이었다.

좁은 회랑 하나를 건널 때조차 서로의 소매 끝을 잡거나 손등이 스칠 만큼 가까이 붙어 걸었다. 누군가 문을 조금 세게 닫으면 여러 사람이 동시에 어깨를 움츠렸고, 금속 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굴러가는 소리만 나도 경비병들의 손이 반사적으로 칼 자루를 향했다.
왕궁은 여전히 같은 모양을 하고 있었지만, 내부를 떠받치던 믿음은 조용히 아래로 가라앉고 있었다.

심해 속으로 내려가는 것처럼.
빛은 아직 달고 있었으나, 그 빛이 사람들의 마음까지 비추지는 못했다.
부서진 왕좌 회랑의 입구에는 임시 경계선이 세워졌다. 바다의 왕국을 상징하는 작은 조개 표식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놓였고, 기사들은 교대로 그 앞을 지켰다.

조개의 입은 단단히 닫혀 있었지만, 사람들은 이제 그 안이 정말 안전한지 확신하지 못했다.
경계선 안쪽에서는 기록관들이 반란군이 남긴 물건과 시신을 하나씩 분류한다.
보름달 문양이 새겨진 금속 장치.
미세한 보랏빛 가루가 묻은 단검.
왕궁 내부의 수로와 회랑이 그려진 천 조각.
뜻을 알 수 없는 암호문과 검은 유리 구슬.
증거는 예상보다 많았다.

그 수가 늘어날수록 사람들의 표정은 더 어두워졌다. 적이 총동적으로 왕궁 안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물건 하나하나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오래 준비해왔다.
왕궁의 회랑과 수로를 알고 있었고, 경비가 바뀌는 시간도 알고 있었다. 어느 문이 자주 잠기지 않는지, 어떤 계단 아래가 사각지대가 되는지, 어느 경비병이 새벽 교대에 약한지까지 알고 있었다.
누군가가 안에서 알려주었다.

왕궁의 이름 없는 수많은 존재들 가운데, 누군가는 스스로가 무엇인지 숨긴 채 이곳에 머물고 있었다. 이 세계에서 이름은 가볍지 않았다.
이름은 단순히 상대를 부르는 소리가 아니라, 그 존재가 무엇인지 세상에 남기는 표식에 가까웠다. 이름을 가진 자는 기억되었고, 이름이 불리는 순간 사람은 그 이름에 담긴 의미까지 함께 떠안았다.
그래서 왕궁 안의 많은 사람들은 직책으로 불렸다.

기록관.

대신.

기사.

단원.

이름을 숨긴다고 해서 존재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지만,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은 언제나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지 않은 사람처럼 느껴졌다.

그런 왕궁에서 가장 선명하게 불리는 이름은 하나였다.

리네.

바다의 공주.

하늘빛 바다의 축복을 받은 사람.

그 이름만은 왕궁 어디에서 불리든 같은 파문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제 누군가는 그 이름을 왕궁 안쪽 깊은 곳에서 노리고 있었다.

“확실합니까?”

대신 하나가 낮은 목소리로 묻는다.

기록관은 대답 대신 반란군에게서 회수한 작은 종이를 탁자 위에 펼쳐 보인다. 종이에는 글자 대신 여러 개의 조개가 그려져 있었다. 몇몇 조개는 온전했고, 몇몇은 한쪽이 벌어져 있었으며, 가장 중앙의 조개 하나는 둥근 보름달 안에 갇힌 채 검은 선으로 가로질러져 있었다.

“내부 지도.”

기록관의 목소리는 짧았다.

말할 시간조차 기록에 빼앗기기 싫다는 듯, 그는 손끝으로 문양 하나를 짚었다.

“동문.”

다른 조개.

“의무실.”

그리고 보름달 안에 갇힌 조개.

“왕좌.”

회의실 안에서 누군가의 호흡이 아주 작게 흐트러진다.

기록관은 감정을 보이지 않은 채 두 번째 종이를 꺼냈다.

경비 교대 시각과 수로의 수위, 야간 근무자들의 이동 경로가 지나치게 세세하게 적혀 있었다.

“정확.”

잠시 후.

“외부 파악, 불가.”

그는 종이를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내부 제공.”

누구도 곧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반란은 진압되었지만, 배신은 아직 왕궁 안쪽에 숨 쉬고 있었다.

어둠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간 것뿐이었다.

살아남은 반란군은 왕궁 지하 감옥으로 옮겨진다. 감옥은 왕궁의 가장 아래, 인간이 살아가는 층과 수중 도시 사이에 눌린 듯 자리하고 있었다. 바다의 무게가 벽 너머에서 몸을 밀어붙이는 곳이었다. 축축한 석벽에는 소금 결정이 희게 피어 있었고, 바닥에는 언제나 얇은 물이 고여 있었다.

발을 옮길 때마다 물소리가 길게 울렸으며, 그 울림은 감옥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점점 낮아졌다. 마치 바다가 모든 소리를 삼키고 있는 듯했다. 감옥의 창은 작았다. 그 너머로 보이는 것은 하늘이 아니라 검푸른 바닷물이었다.

낮에는 흐린 빛이 느리게 흔들리고, 밤이면 수면을 통과한 달빛이 아주 희미하게 내려왔다. 보름달이 뜨는 날에는 창살의 그림자가 감방 바닥 위로 둥근 원을 만들었다. 반란군들은 각기 다른 감방으로 나뉘어 들어갔다. 왕궁 안쪽에서 붙잡힌 자들은 가장 깊은 구역으로, 외곽에서 생포된 자들은 그보다 위쪽으로 옮겨졌다.

달의 왕국 문양을 소지했던 자들의 손목과 발목에는 바다 마법이 깃든 족쇄가 채워졌다. 족쇄에는 작은 조개가 새겨져 있었고, 마력이 움직이면 조개가 천천히 닫히며 착용자의 살을 압박했다. 누군가는 결백을 주장했다. 누군가는 명령을 따랐을 뿐이라고 흐느꼈다.

누군가는 벽에 머리를 기대고 멍하니 숨만 쉬었다. 달의 왕국에서 넘어온 것으로 보이는 자들은 대부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바닥을 내려다 보거나, 창살 너머의 물결을 바라보며 아주 희미하게 입꼬리를 올렸다. 그 웃음은 패배한 자의 웃음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간수들은 그들을 더 경계했다.

복도 끝 감방에는, 무단 이탈과 거짓 보고로 처벌 받았던 그 단원도 함께 갇혀 있었다.
그의 이름은 장부 어딘가에 적혀 있었지만, 사람들은 그 이름을 쉽게 떠올리지 못했다. 눈에 띄지 않는 갈색 머리와 흔한 체격, 특별하지 않은 말투. 오랫동안 같은 훈련장을 사용했음에도 그가 무엇을 좋아했고 어떤 순간에 웃었는지 정확히 기억하는 이는 거의 없었다.
마치 이름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누구의 입에서도 완전히 불리지 못한 사람처럼.

처벌 이후 그의 몸에는 흔적이 남아 있었다.
비린 물이 오래 스며들어 생긴 피부의 붉은 반점이 목 주변에 퍼져 있었고, 억지로 삼킨 날생선 탓인지 말을 할 때마다 목에서 쉼 소리가 났다. 그러나 가장 깊게 남은 것은 눈이었다. 누군가가 감옥 복도를 지나가면 그는 고개를 숙였고,
당신의 발소리와 닮은 걸음이 들리기만 해도 손가락이 작게 떨렸다.
그럼에도 그는 살아 있었다.
살아 있었기에,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리네는 반란 이후 처음으로 왕국의 주요 인사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은다.
대신들, 기사단장, 검술 감독, 경계 마법 책임자, 기록관과 수로 관리 책임자까지 긴 탁자 주변에 앉았다. 탁자 가운데에는 왕국의 지도가 펼쳐져 있었고, 반란 당시 공격받은 지점마다 검은 돌이 놓여 있었다.

동문.
왕좌 회랑.
의무실.
주방 뒤편 수로.
보급 창고.
시종 대기실.
왕궁의 안과 밖이 고르게 뚫려 있었다.
지도는 단순한 지도가 아니라, 왕국이 어디부터 찢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처처럼 보였다.
리네는 가장 안쪽 자리에 앉아 그 상처들을 내려다 본다.

푸른빛과 흰빛으로 정돈된 옷차림은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았으나, 소매 아래로 드러난 손은 평소보다 창백했다. 전날 밤 잠들지 못한 흔적이 눈 아래에 열게 내려앉아 있었고, 손끝은 탁자 아래에서 서로를 아주 약하게 누르고 있었다.
“복구에는 얼마나 걸리죠.”
목소리는 조용했다.

건축 담당 대신이 답한다.
“겉으로 드러난 손상은 보름 안에 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계 마법망을 처음부터 다시 연결하려면 최소 한 달이 필요합니다.
현재 구조를 그대로 사용하는 건 위험합니다. 이미 적이 길을 알고 있습니다.”
“수로네요.”
어인 출신의 수로 책임자가 낮고 거친 목소리로 입을 연다.

“하층 수로 세 곳이 오염됐습니다. 피와 달의 마력이 같이 섞였어요. 물을 갈아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인어 정화단이 노래를 이어가고 있지만, 물이 자꾸 같은 냄새를 되찾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춘다.

말보다 물의 감각을 더 믿는 존재답게, 그 침묵조차 묵직했다.

“바다가… 무언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대신 하나가 불편한 얼굴로 몸을 움직인다.

“미신적인 표현은 자제해 주시오.”

수로 책임자가 천천히 그를 바라본다.

“인간은 물이 두려워하는 냄새를 말지 못하지. 그러니 미신이라고 부르는 거고.”

목소리가 높지는 않았지만, 그 안에는 자존심과 피로가 함께 섞여 있었다.

리네가 손을 들어 두 사람의 말을 가라앉힌다.

“계속해 주세요.”

수로 책임자가 고개를 숙인다.

“한 달 이상 수중 통로 일부를 닫아야 합니다. 물자의 이동이 느려질 겁니다. 인어와 어인 거주 구역에서도 불만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외교 담당 대신이 깊은 숨을 토해낸다.

“항구 거래량은 이미 크게 줄고 있습니다.

수중 통로까지 막히면 상인들은 다른 왕국의 항로로 빠져나갈 겁니다. 달의 왕국이 노리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왕궁을 무너뜨리는 것보다 먼저, 우리를 고립시키려는 거죠.”

“그럼 전쟁을 선언하자는 말입니까?”

다른 대신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배어 있었다.
기사단장이 붕대 감긴 어깨를 조금 고쳐 앉으며 대답한다.

“우리가 선언하지 않는다고 해서 전쟁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서서히 아래로 가라앉는다.
누구도 틀린 말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더 깊은 어둠이 만들어진다.

리네는 의견을 하나씩 듣는다.

말을 끊지 않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며, 끝까지 여왕의 얼굴을 지키려 한다. 그러나 누군가 왕국의 손실을 말할 때마다 손끝은 조금씩 더 깊게 맞물린다. 숫자는 그녀의 머릿속에서 사람의 얼굴로 바뀌고, 손실은 상처와 비명으로 되돌아온다.

마침내 대신 하나가 아주 신중하게 입을 연다.

“그리고… 그 기사에 관한 문제도 논의해야 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진다.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모두가 누구를 말하는지 알고 있었다.

당신.

이름 대신 존재만이 또렷한 사람.

리네의 손끝이 멈춘다.

기사단장이 먼저 입을 연다.

“왕좌 회랑을 지킨 건 그 사람입니다. 그가 없었다면 공주님과 대신들 중 절반은 살아 있지 못했을 겁니다.”

“그 사실을 부정하려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신이 조심스럽게 말을 잇는다.

“그러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이 도움을 청했는데도 공주님의 곁을 떠나지 않았고, 이미 무기를 버린 자에게까지 칼을 겨누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단원들의 동요가 큼니다.”

젊은 기사 대표가 한동안 망설이다 고개를 숙인다.

“일부 단원들은… 같은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사단장의 눈썹이 굳어진다.

“두려워서?”

긴 침묵 뒤, 젊은 기사가 고개를 끄덕인다.

“예.”

검술 감독은 팔짱을 낀 채 말이 없었다.

리네가 그를 바라본다.

“감독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는 바로 답하지 않는다.

지도 위의 검은 돌들을 오래 바라보다가, 마침내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연다.

“검으로만 본다면, 지금 왕국에서 가장 필요한 자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낮게.

“사람으로 본다면… 이곳에 그대로 두는 것이 옳은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리네의 눈동자가 아주 조금 흔들린다.

검술 감독은 감정을 눌러 감춘 채 말을 이어간다.

“그 아이는 승리를 위해 싸우지 않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공주님 한 사람만을 위해 몸과 명령과 동료까지 전부 버릴 수 있는 상태입니다.”

대신 하나가 조심스럽게 묻는다.

“그것을 충성이라 볼 수는 없습니까.”

검술 감독이 짧게 답한다.

“충성은 명령을 듣습니다.”

그 한마디가 회의실 안으로 천천히 가라앉는다.

누구도 쉽게 반박하지 못한다.

다른 대신이 말한다.

“전출을 고려해야 합니다.”

리네가 고개를 든다.

전출.

당신을 왕궁 밖으로 보내는 일.

그 생각은 처음이 아니었다. 이미 여러 번 머릿속 가장자리에서 스쳐갔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목소리로 들으니 그것은 더 이상 생각이 아니라 현실의 형태를 가진다.

“어디로.”

리네의 목소리가 생각보다 차갑게 흘러나온다.

“북부 해안이나 외곽 분쟁지대가 적절합니다. 어쩌면 더 먼곳... ‘그곳까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곳’, 대지의 왕국. 항상 전투가 끊이지 않으며 백성 한명 한명이 모두 굉장한 실력자들이며 전투에 있어 괴물이라 평가받는 소수집단의 왕국 그 이름의 등장엔 리네의 표정이 한층 더 어두워지지만 검술 감독의 말은 천천히 이어진다.

”왕궁과 거리를 두면 단원들의 불안도 줄고, 그 기사 역시… 현재의 집착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집착.”

리네가 그 말을 아주 낮게 되풀이한다.

대신이 고개를 숙인다.

“표현이 과했다면 사과드립니다.”

“아니요.”

대답은 빠르다.

“계속하세요.”

그러나 그 뒤의 말은 깊은 물속에서 들려오는 것처럼 멀어진다.

곁에 두어야 자신이 잠들 수 있다.

그가 문밖에 서 있으면 적어도 아직 살아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회랑에서 그 발소리가 들리면 왕궁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다고 믿을 수 있다.

하지만 곁에 둘수록 당신은 더 빠르게 망가진다. 명령을 어기고.

동료를 버리고.

쓰러진 적에게까지 칼을 겨눈다.

자신을 지킨다는 이유로, 자기 자신을 없애간다.

리네는 입술 안쪽을 아주 약하게 깨문다.

전출.

내가 지금, 저 사람을 보내는 일을 생각하고 있어. 그 사실이 스스로도 두려웠다.

뒷골목에서 손을 내밀었던 것도 자신이었다. 왕궁으로 데려와 이름 없는 자에게 자리를 준 것도,

검을 쥐게 한 것도, 임무를 내린 것도 전부 자신이
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 사람이 망가졌다는 이유로 멀리
보내려 한다면, 그것은 구원일까.
아니면 버림일까.
결에 두는 것이 사랑이라면, 왜 그는 날마다 말라
가는가.
멀리 보내는 것이 배신이라면, 왜 그것만이 살리는
길처럼 느껴지는가.

리네는 두 선택 사이에서 오랫동안 침묵한다.
사람들은 그녀의 결정을 기다린다.
마침내 리네가 말한다.
“아직 결정하지 않습니다.”
목소리는 짧고 단단하다.
“왕궁 복구와 내부 조사가 먼저입니다. 그 사람에
관한 처분은… 이후에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회의는 끝났지만, 리네 안쪽의 논의는 끝나지 않는
다.
오히려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간다.
빛이 닿지 않는 곳으로.

당신은 회의 내용을 알지 못한다.
회의가 이어지는 동안에도 왕궁의 회랑을 돌고,
왕좌 회랑의 경계선을 지나칠 때마다 피가 고였던
자리를 바라본다.
바닥은 깨끗했다.
하지만 당신의 눈에는 아직도 핏자국이 남아 있었
다.
반란에서 얻은 상처는 제대로 아물지 못했다.

팔뚝의 창상은 붕대로 감겨 있었지만 움직일 때마다 안쪽에서 다시 벌어졌고, 옆구리의 상처는 옷감과 스칠 때마다 뜨겁게 타올랐다. 의무관은 쉬어야 한다고 했으나, 당신은 경비 명단에 다시 자신의 이름 없는 자리를 올렸다.

남자 단원이 당신을 보자 얼굴을 찌푸린다.

“아, 너 진짜 미쳤냐?”

목소리는 낮지만 짜증을 숨기지 못한다.

“옆구리 꿰맨 지 하루도 안 됐잖아. 걸을 때마다 피 새는 거 안 보여?”

당신은 대답하지 않는다.

“아, 또 그 표정이네.”

그는 머리를 거칠게 긁는다.

“네가 문 앞에 안 선다고 공주님이 당장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고… 젠장, 말을 해도 듣질 않냐.”

그러면서도 끝내 당신을 억지로 끌어내리지는 못한다.

여성 단원은 붕대를 살피본 뒤 조용히 입을 연다.

“상처가 다시 열렸어.”

꾸짖음보다 체념에 가까운 걱정이 묻어난다.

“오늘만이라도 쉬면 안 돼?”

당신은 아주 작게 고개를 젓는다.

그녀는 한동안 당신을 바라보다 새 붕대를 꺼내 상처를 다시 감아준다. 손길은 부드럽고, 마지막 매듭은 조금 단단하다.

“그럼 적어도 쓰러지지는 마.”

그 말을 남기고 돌아서는 어깨가 평소보다 조금 더 내려가 있었다.

당신은 결국 리네의 침실 앞에 선다.
예전처럼.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리네는 방 안에서 곧바로 당신의 기척을 알아차린다.
회의 내내 머릿속에 맴돌던 단어가 다시 떠오른다.

전출.
문을 열어야 할까.
지금이라도 물어야 할까.
왜 그렇게까지 자신을 망가뜨리는지.
어떻게 해야 멈출 수 있는지.
혹은 자신이 곁에 없으면 정말 멈출 수 있는지.
리네는 문 앞까지 걸어와 손을 문고리 위에 얹는다.
문 너머에는 당신이 있다.
아주 가까이.

숨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지만, 상처 때문인지 호흡이 가끔 아주 짧게 끊어진다. 그 미세한 흔들림이 문을 통해 전해질 때마다 리네의 손끝도 함께 흔들린다.
문을 열면 된다.
이름을 부르면 된다.
그러나 리네는 당신을 부를 이름을 알지 못했다.

처음부터 당신은 이름 없이 이 왕궁으로 들어왔다.
사람들은 당신을 기사라 불렀고, 단원이라 불렀으며, 때로는 그저 당신이라 불렀다. 리네 역시 한 번도 이름을 묻지 않았다.

이름이 없어도 괜찮다고 했던 첫날의 말이, 이제
와서는 두 사람 사이에 놓인 가장 깊은 빈자리처럼
느껴졌다.

무엇이라 불러야 할까.

어떤 이름으로 붙잡아야 할까.

리네의 입술이 아주 조금 열리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는다.

들어와 달라고 말하고, 앉으라고 하고, 상처를 보
여달라고 하고 싶었다.

예전이라면 그럴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의 리네는 문을 열지 못한다.

당신이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두려웠다.

충성과 사랑과 집착이 더 이상 구분되지 않는 그
눈을 마주하면, 전출이라는 생각을 품었다는 사실
이 들킬 것만 같았다.

리네의 손이 문고리에서 천천히 내려온다.

“...안 돼.”

아주 작은 목소리.

그 말이 무엇을 향한 것인지는 그녀 자신도 알지
못한다.

문을 열면 안 된다는 뜻인지.

당신을 계속 곁에 두면 안 된다는 뜻인지.

혹은 이런 생각을 품는 자신이 잘못되었다는 뜻인
지.

문밖의 당신은 듣지 못한다.

리네는 문에 등을 기대고 천천히 주저앉는다. 무릎
을 끌어안지는 않는다. 그런 자세는 너무 소녀 같
았고, 그녀는 아직 여왕이어야 했다.

대신 등을 곧게 편 채 바닥에 앉아, 입술을 다문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은 같은 밤을 견딘다.
서로의 기척으로 안심하면서도.
서로 때문에 더 깊이 가라앉으며.

지하 감옥에도 밤이 내려온다.
간수들의 교대가 끝난 뒤, 가장 깊은 감방 구역은
심해처럼 고요해진다. 바닷물 너머에서 내려온 달
빛이 작은 창을 통과해 바닥에 희미한 원을 만든다.

그 원이 보름달처럼 둥글어졌을 때, 달의 왕국 병사 하나가 천천히 고개를 든다.
그는 며칠 동안 거의 입을 열지 않았다.
음식은 살아남을 만큼만 먹었고, 심문을 받을 때마다
같은 말만 되풀이했다.
“나는 아는 것이 없다.”
그러나 그 밤, 그의 입가에 아주 얇은 미소가 번진다.

복도 건너편 감방에는 이름이 잘 떠오르지 않는 그
단원이 앉아 있었다. 그는 벽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은 척하고 있었다.
달의 병사가 손가락 끝으로 바닥을 두 번 두드린다.
잠깐 쉬고 한 번.
다시 두 번.

물방울 소리와 쇠사슬이 흔들리는 소리 사이에 섞이면 아무 의미도 없는 잡음처럼 들린다.
그러나 이름 없는 단원의 눈꺼풀이 아주 작게 떨린다.
그는 기침을 한다.
짧게 한 번.
길게 두 번.
그렇게 대화가 시작된다.

달의 병사는 몸을 돌리며 손목에 감긴 천을 아주 조금 풀어낸다. 천 안쪽에서 종이보다 얇고 물고기 비늘처럼 은빛을 띠는 작은 조각이 드러난다.
그는 조각을 손가락 사이에 끼워 감방 앞 얇은 물에 떨어뜨린다.
물결이 움직인다.
은빛 조각은 떠내려가지 않는다. 마치 스스로 길을 알고 있는 것처럼 창살 아래의 작은 틈을 지나 복도를 건넌다. 이름 없는 단원의 감방 앞에 달자,
그는 발끝을 아주 천천히 움직여 조각을 끌어당긴다.

그 순간 복도 끝에서 인기척이 번진다.
두 사람은 동시에 움직임을 멈춘다.
리네가 서 있었다.
경비병 몇과 기록관을 데리고, 반란군 포로들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러 내려온 것이다.
리네의 시선이 물 위에서 잠시 멈춘다.
은빛 조각은 이름 없는 단원의 발밑에 절반쯤 가려져 있었다.
리네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감방 앞으로 곧장 다가가지도 않는다. 아무것도 보지 못한 것처럼 천천히 걸음을 이어간다.

“포로들의 상태는요.”

간수가 긴장된 목소리로 답한다.

“특별한 이상은 없습니다.”

리네의 눈이 아주 잠깐 이름 없는 단원의 얼굴에 머문다.

그는 고개를 숙인다.

“그래요.”

짧은 대답.

그녀는 감옥을 빠져나갈 때까지 어떤 명령도 내리지 않는다.

복도 위로 올라온 뒤에야 기록관을 향해 아주 낮게 말한다.

“세 번째 감방 앞 수로는 막지 마세요.”

기록관이 그녀를 바라본다.

“감시?”

“네.”

“간수 교체?”

“아니요.”

리네의 목소리는 고요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해요. 무엇이 전달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기록관이 짧게 고개를 끄덕인다.

“미끼.”

“맞아요.”

리네는 손끝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낀다.

그 단원은 단순히 도망치려 했던 사람이 아니었다.

반란군과 연결되어 있었고,

그 뒤에는 달의 왕국이 있었다.
달의 왕국과의 균열은 이제 외교로 봉합할 수 있는
선을 넘어가고 있었다.
그 사실이 두려웠다.
동시에, 그녀 안에 남은 여왕을 아주 차갑게 깨웠
다.
“누구에게도 알리지 마세요.”
기록관이 잠시 망설인다.
“그 기사에게도?”
당신을 뜻하는 말이었다.

리네는 바로 대답하지 못한다.
짧지만 분명한 침묵.
“네.”
마침내 그녀가 답한다.
“그 사람에게도.”
말이 끝나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무겁게 가라앉는
다.
또 숨겼다.
또 보호한다는 이름으로, 가장 중요한 사람을 바깥
에 남겨두었다.
그 결정이 옳은지는 알 수 없었다.
그러나 리네는 이미 움직이기 시작한다.

감옥 수로 아래에는 조개 모양의 감시 마법이 은밀
히 새겨지고, 이름 없는 단원이 주고받는 신호는
기록관의 손으로 차곡차곡 쌓인다. 반란군들의 식
사 시간과 간수 교대 시각도 조금씩 바뀐다. 외부
의 누군가가 감옥과 연결되어 있다면, 그 변화에
반드시 반응할 것이라는 판단이었다.

날카로운 판단.
그러나 너무도 외로운 판단.

깊은 밤.
달의 병사가 다시 감방 바닥에 손가락을 댄다.
이번엔 두드리지 않는다.
창살 사이로 희미하게 들어온 달빛을 손끝으로 가
르며, 물방울 소리보다 낮은 목소리로 속삭인다.
“...보름달은 이미 뒀다.”
이름 없는 단원은 대답하지 않는다.
그는 은빛 조각을 펼쳐본다.
글자는 없었다.
보름달 하나.

그리고 그 아래 검은 선으로 그려진 조개 하나.
조개에는 아주 작은 균열이 나 있었다.
달의 병사가 웃는다.
“이제 조개는...”
목소리는 깊은 물속에서 울리는 듯 희미했다.
“...안에서부터 깨질 거다.”
이름 없는 단원은 조각을 손바닥 안으로 감춘다.
그러나 그는 알지 못한다.
감방 바깥 수로 아래, 아주 작은 조개 모양의 감시
마법이 그의 손끝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리네 역시 알지 못한다.

자신이 발견한 이 작은 실마리가, 달의 왕국이 일
부러 보여준 길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왕궁 위로 달빛이 내려앉는다.
달힌 조개 문양의 틈마다 희고 차가운 빛이 조금씩

스며든다.

반란은 끝났다.

그러나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왕궁은 이제야, 적의 얼굴을 바라보려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내려가고 있었다.